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 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여 읽을 수 있다.   |  |  |  | | --- | --- | --- | |  |  |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해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 |  |  | | **[A]** | | |  |  | |  |  |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지, ⓑ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독자는 ⓒ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 지능을 통해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글이나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

|  |  |
| --- | --- |
|  |  |
| **[A]** | |
|  |  |